

한 눈에 보는 로타리

로타리는 인류의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을 들여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로타리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들과 자치령에서 활동하는 120만 회원들을 연결한다. 로타리 회원들은 가까운 이웃을 돕는 일에서부터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로타리는 다음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인터랙트**: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하는 12~18 세의 청소년 봉사 단체로, 전세계 133 개국에 1 만 2,300 개 이상의 클럽이 활동 중이다.
- **로타랙트**: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하는 18~30 세의 젊은 성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리더십 함양 및 커리어 개발, 봉사 활동에 주력한다. 167 개국에 8,000 개 이상의 클럽이 활동 중이다.
-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RCC)**: 로타리 이상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로타리안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80 개국에 7,500 개 이상의 봉사단이 활동 중이며, 모두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를 받고 있다.

멤버십 스냅샷

누가 회원인가: 로타리는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실천에 나서는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다. 로타리 회원들의 직업군은 의사, 예술가, 소상공인, 기업 임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모두 ‘로타리안’이란 이름으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로타리는 회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회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어디서 활동하나: 아이티에서 그린랜드, 나이지리아에서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로타리는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리더들을 규합하고 있다. 클럽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인도와 일본, 브라질의 순이다. 로타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이다.

어떤 활동을 하나: 로타리안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 노력을 들여 전 세계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발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평화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식수 및 위생, 모자보건, 기본 교육과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과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소아마비 퇴치 로타리는 1985년 전세계적인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인 폴리오플러스를 런칭한 이래 소아마비를 99.9%까지 퇴치하여 인류 역사상 천연두에 이은 두 번째의 질병 퇴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988년, 로타리는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와 파트너가 되어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GPEI)를 발족시켰으며 지금까지 소아마비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로타리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지금까지 미화 17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전세계 회원들은 면역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122개국의 20억 명의 아동들에게 백신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로타리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5,00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며,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은 로타리의 모금액에 대해 1대 2로 상응 지원한다.